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 "이승만 별장 원형 그대로 보존돼 역사적 가치 상당히 높아"

신석하 국제대 건축디자인과 교수 인터뷰

데스크승인 2013.01.01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 SONY DSC

올해 추진되는 이승만 별장 복원의 책임 연구원은 신석하 제주국제대 건축디자인과 교수가 맡고 있다.

신 교수가 내놓은 종합정비계획을 보면 이 별장은 도내 최초로 서양 건축 양식이 도입된 주택으로, 일본풍 서구 양식을 벗어나 1950년대 모더니즘 주택의 모습과 함께 부분적으로 한국적인 특징이 혼재돼 있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신 교수는 "외벽에 전통적이 문양인 쌍희(喜喜)가 박혀있고, 테라스 바닥엔 무종무시(無終無始) 문양을 넣었다는 점에서 한국적인 특징이 가미됐다"며 "특히 외벽 주재료는 제주의 현무암을 사용

해 근대 서구문화와 제주의 토속적인 문화가 융화돼 독특한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복원을 할 경우 창틀은 물론 전구 한 알까지도 원형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라며 “다만 빗물이 새고 있는 지붕과 복도는 새롭게 단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고성군 화진포에 있는 이승만 별장을 조사한 그는 “화진포 이승만 별장은 1961년 철거된 것을 1999년 기록사진을 토대로 새로 지으면서 원형이 아님에도 관광 명소이자 격동기의 산 교육장으로 떠올랐다”며 “반면 송당목장 이승만 별장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역사적 현장임에 동시에 현존하는 초대

대통령 별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장을 복원·정비하고 생활상을 재현해 역사의 한 장면을 후세에 남겨야 하고, 소극적인 보존 방법을 벗어나 전시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이 머물렀던 별장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숙박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당초 별장과 사료관을 건립하는 계획과 함께 주변 올레와 오름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염두에 뒀으나 건물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이 나와 우선 복원과 정비가 시급하다”며 “관광 자원화는 도민 공감대를 거쳐 추후에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4·3의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할 역사라면 이승만 별장과 함께 4·3과 이승만에 대한 특별 사료관을 설치해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알리는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끝으로 “축산 부국의 의지를 담은 이승만 별장은 등록문화재임에도 인지도가 매우 낮아 보존은 물론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 했었다”며 “이번 복원을 계기로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스토리텔링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제주新보**